

하늘마음



그리스도의 세례

[피에트로 페루지노, 페루시아 움브리아 국립 미술관.]

작품은 세로 길이가 긴 직사각형 형태로 화면 중앙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다. 그 옆으로는 천사들이 세례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흰 비둘기 형상으로 날개를 활짝 편 채 예수님 위로 내려오고 있다. 성경은 이 순간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6 마르 1,11 루카 3,22)하는 소리가 울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로서 오직 하느님의 의로움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돌보다 묵묵히 고난을 받을 하느님의 종이 되셨다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고백이다.

[평화신문, 2007년 1월 7일, 리길재 기자]

2021년 1월 10일 주님 세례 축일 (백)

입 당 송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1독서 이사 42,1-4.6-7 <또는> 이사 55,1-11

화 답 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사도 10,34-38 <또는> 1요한 5,1-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 음 요한 1,6-8.19-28

영성체송

◎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전례주년과 전례력

장원혁 세례자요한 신부 / 사목국 교육지원팀



찬미예수님! CYA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10일 일요일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네. 맞아요.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그리고 성탄 시기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교회는 또 다른 의미로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한 역법에 따라 계절이 바뀌는 주기를 근거로 하여 만든 것을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력으로 오늘이 1월 10일인지 알수 있지요. 그럼 오늘이 주님 세례 축일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교회의 달력이라 할 수 있는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우리 친구들 이제 주일에 멍하니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어떤 시기인지 어떤 날인지 알면서 미사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을 보다 기쁘게 체험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한 해의 흐름을 통해 정해진 날마다 하느님의 구원 활동을 거룩한 기억으로 경축하는 것을 임무라 여깁니다. 한 해를 주기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탄생부터 수난,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날까지 또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일 년 주기를 전례주년이라 합니다. 이 모든 시기에 우리 친구들은 매일 그리고 주님의 날이라 불리는 주일마다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에 다가가 그 신비에 참여하고 그 신비를 통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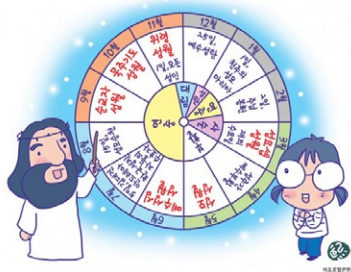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중심으로 전례주년은 구분되는데 그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이 아니라 대림 제1주일부터입니다. 대림 시기는 대림 제1주일부터 12월 24일 제1저녁기도 전까지인데,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탄생과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아 회개와 속죄로 구세주 오심을 기쁘게 기다리게 시기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주님성탄대축일을 시작으로 '성탄 시기'가 시작됩니다. 성탄 시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세례축일까지 성탄 시기예요. 성탄 시기에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신 하느님의 사랑을 기뻐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성탄 시기가 끝나면 무슨 시기일까요? 한 해의 주기에서 고유한 특성을 뺀 시기를 빼면 33주간이나 34주간이 남아요.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 신비의 특별한 부분을 경축하기보다는 공생활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기념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연중 시기'라고 해요. 내일부터 우리 친구들은 연중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연중 시기에서 우리는 대림, 성탄과 다른 또 다른 특별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네, 바로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이어주는, 일 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파스카 성삼일'이에요. 주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전례주년 전체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에 이르기 위해 우리 친구들 앞으로의 성삼일은 꼭 참여하도록 해요.

이 파스카 성삼일 전까지 재의 수요일부터 성삼일의 시작인 성목요일 주님만찬미사까지 참회와 속죄로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파스카 성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주님부활대축일부터 성령강림대축일까지 50일간 매일이 축제인 것처럼 기뻐하며 부활 시기를 보내는 것이지요. 부활 시기를 마치면 이제 다음 대림 시기까지 남은 연중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중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탄부터 사순 시기 전까지, 부활부터 대림 시기 전까지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요? 그래서 신부님이 아래 사진에 표도 준비했어요. 시기별로 잘 나와 있으니 내용과 표를 함께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표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전례주년을 보내며 우리 친구들은 또한 특별한 달에는 성월도 보내게 되요. 성월에는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전례력 출처 : 비오로달콘텐츠 베이비샘

이러한 전례주년을 달력으로 표시한 것을 '전례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 교회 달력이라고도 불리는데 대축일, 축일, 기념일 등 시기와 날에 따른 전례말씀이나 제의색, 시간전례를 나타내는 성무일도 등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친구들은 이 '전례력' 책을 꼭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매일미사나 교회에서 나온 달력을 통해 날마다 교회에서는 어떤 날로 보내고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미사는 모두 소중해요. 하지만 오늘의 미사가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하며 미사에 참여한다면 미사를 통한 은총은 매우 풍성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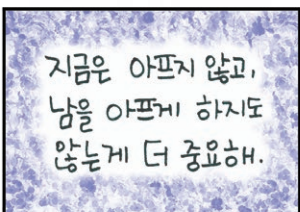
짧게나마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주님께서는 바로 거룩한 전례주년의 거행을 통해 미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속 활동하세요. 이 전례주년을 잘 따라갈 때 우리 친구들은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전례주년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미사의 각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다음 달이 기다려지지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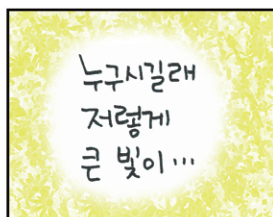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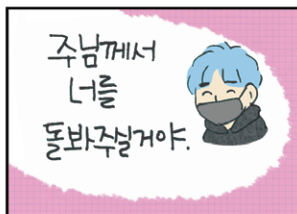




날으는 CYA

Vol.998 | 염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2021 하늘마음 특집 원고



'사이비? 이단? 신흥종교? 유사종교?' 뭐가 다른 걸까요?



CYA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유사종교 바로 알기”를 진행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유사종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유사종교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사이비, 이단, 신흥종교, 유사종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모든 친구들이 “OO는 이단 종교래. 그래? △△는 사이비 종교라던데?”라는 식의 이야기를 직접 해봤거나 아니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사이비, 이단, 신흥종교, 유사종교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이비, 이단, 신흥종교, 유사종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볼까 해요.

먼저 우리가 은연중에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비와 이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이비(似而非)는 글자 그대로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라는 뜻이에요. 조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어떤 교회가 성경책도 가지고 있고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며, 교리를 가르치거나 우리가 미사를 보는 것과 같은 전례 행위도 거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정상적인 종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다.’라는 등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분명 사이비입니다. 이해가 되죠?



출처 : 단자일보

게다가 사이비는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자신들을 절대시하면서 타종교를 배척하고 기존의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부의 일들에 대해서 비밀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등의 특징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더욱 속 사이비라는 게 확실해진답니다.

그러면 **이단(異端)**은 뭘까요? 먼저 교회법 751조를 보면 이단은 “세례받은 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완고히 의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지만 교회가 믿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 판단이나 신념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이단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지만 ‘성모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은 안 믿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됩니다.

이제 사이비와 이단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은 이단일까요? 사이비일까요? 네, 신천지는 사이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다른 교회랑 다를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2,000년 전 그때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만희 총회장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들의 주장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과 완전히 어긋나 있지요. 그래서 신천지는 겉으로는 비슷해보이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른 사이비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흥종교와 유사종교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신흥종교는 말 그대로 기존의 종교가 아닌 새롭게 생겨난 종교를 말하는데 이단이나 사이비에 해당하는 것들도 새롭게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신흥종교라는 말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신흥종교라는 표현이 마치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들을 새로운 종교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흥종교라는 말 대신에 **유사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사하다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종교적인 유사 행위를 하는 단체이며 종교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렇게 ‘사이비, 이단, 신흥종교, 유사종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달에는 “그렇다면 참된 종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CYA 친구들, 다음 달에 만나요!





주님 세례 축일



이종민 대건안드레아 / 미디어부 부서원

CYA 친구들 새해를 맞이한 기분이 어떨까요? 작년은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어서 친구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으리라 생각 되요. 하지만 올해는 이 모든 시련을 주님의 은총으로 잘 이겨내고 평범했던 일상 생활로 다시 돌아가길 기도하며 복음묵상을 시작해 보려 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을 기억하는 날 이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우리 CYA 친구들도 훗날 참여하게 되었는데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세례의 뜻만 풀이하자면 ‘물로 씻는 예절’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사(聖事)’라는 글자를 더하여 이세상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베로키오, 1472~1475년 피렌체 이탈리아)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해요. 세례는 받는 순간 “나는 하느님을 선택하였고, 그 분의 뜻에 따르겠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례를 받는 날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축복해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세례는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있고 하느님의 뜻이 내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음을 인정하는 표징이기에 세례성사를 받은 우리모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을 그분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세례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 드리며 2021년도 힘차게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멘.

